불교총지종은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을 교주로, 옴마니반메훔을 본존으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한 재가종단입니다.

총지종보

2001년 11월 1일 목요일 제28호

이 달의 종조법설

선지식은 착한 법을 가진 이라. 스스로 낙을 구하지 않고 항상 중생을 위하여 낙을 구하며 남의 허물을 흠잡지 아니하고 항상 착한 것만 말하나니 이러므로 선지식이니라.

발행인 : 혜암 편집주간 : 원송 편집인 : 하경목 인쇄인 : 김준배 www.chongji.or.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사항을 준수한다. 구독신청 : (02)552-1081

제58회 추계강공회 원만 회향

총기 30년 추가경정 예산심의 및 31년 예산심의 통과
법황사 등 5개 사원 신축 · 보수 결의

〈95회 승단총회가 열리고 있는 장면〉

제58회 추계강공회가 지난 10월 16일 사회복지재단이사회를 시작으로 3박4일 동안 진행됐다.

전국 스승님이 전부 모인 가운데 실시된 이번 강공회는 사회복지재단 이사회와 원의회, 중앙종의회, 스승교양교육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록정 종령은 개강식 법어에서 종조님의 육대유시를 설파하시고, "확고한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 상호간에 하심하고 양보하며, 화합을 강조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명랑하게 교화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재단 임시이사회에서는 2002년 복지재단 예산 심의와 역삼노인복지센터 수탁 재계약에 관한 안건에 대해 심의, 재계약키로 결의하였다. 또한 강남 청소년수련관 수탁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종단의 사정상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열린 원의회와 재단이사회 연석회의에서는 총기 30년 추경 예산 심의와 내년도 수·지 예산안 심의 결의하고, 사원 신축 및 부지건물 매입·매각에 관한 건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사원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총지사 서원당 이설불사는 이번 년도 내에 착공하기로 결의되었다.

제 74회 중앙종의회에서는 앞서 원의회와 재단이사회에서 심의·결의되었던 추경 및 총기 31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법황사(광주), 관성사(서울), 덕화사(부산), 흥국사(전주), 정혜서원당(인천)의 신축 및 보수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 추진키로 결의했다. 또 구(舊) 만보사(대전)와 국광사(경주)를 매각하기로 결의하였다.

자색 법의, 황금색 가사
오는 12월 점안불사 통해 선보일 듯

지난 4월부터 논의 되어온 총지종의 새로운 법의제작이 완성되어 올 12월 중 점안불사를 통해 현대에 맞는 법의가 선보이게 된다.

그동안 승단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 차례 수정과 세부작업을 거쳐 종령님은 황금색법의에 홍가사, 스승님은 자색법의에 황금색가사로 선보인다.

새 법의는 현대에 맞는 산뜻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위엄을 나타내고 있으며 천연섬유소재를 사용하여 흡습 발산성이 우수하고 구김이 없으며 비중이 낮아 가볍게 하였다.

새로운 법의는 오는 12월 점안 불사를 통해서 교도들에게 선보여진다. 이로써 혜암 통리원장의 본산건설, 불단장엄, 법의와 의궤의 현대화 3대 목표 중 법의 제작으로 첫단추가 끼워졌다.

태장계 만다라 마무리 작업 들어가
한국적 만다라, 교의적으로 분명한 의궤, 결인, 수인 계승

불교총지종이 3년여 작업기간을 거친 태장계 만다라가 11월 말경 사부대중에 그 모습을 들어낼 예정이다.

태장계 만다라는 대일경에 설하여진 가르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곧 부처님의 세계로서 궁극적 이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경산작업장에서 마무리 작업중인 태장계 만다라는 한국적인 만다라로써 도상과 의관, 화관을 한국적으로 창작하였으며, 교의적으로 분명한 의궤, 결인, 수인을 계승하였다. 11월 초 금선(金線) 작업을 그쳐 11월 말 완성될 예정이다. 이번 불사는 최성규 교수(동방불교대 불교회화과)와 연 50인이 참여하여 불교총지종이 이룬 대작불사이다.

태장계 만다라 마무리 작업과 동시에 서울작업장에서는 금강계 만다라의 밑그림 작업이 진행 중이다. 태장계 만다라가 마무리되는 대로 채색 들어가 내년 4월이면 금·태장 양계 만다라를 만날 수 있다.

죽비소리

당체설법(當體說法)을 교훈삼아

진언행자가 삼밀관행으로 전일하게 염송 수행하면 밀교의 삼륜신(三輪身)은 행자에게 법문(法門)을 주어 일체의 번뇌를 극복하고 법(法)을 수행의 등불로 삼게되며, 당체설법이 경전이요, 법신불의 가르치심이란 것을 깨쳐서 바르게 보고(正見), 바르게 행하고(正行), 법과 같이 실천(自燈明 法燈明) 할 때에 인격완성 되면서 해탈 성불할 것입니다.

세간에는 고도의 첨단장비 등 물질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환경이 변하고 있는 이때 진리의 지혜문을 넓혀 사법을 단제하고 법(法)의 자재(自在)증득하여 성도합시다.

〈수성 종사〉

총지캠페인

우리가 사랑하는 총지종보

종보란 종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문과는 기능 면에서 많은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지식 및 정보 전달 기능, 중대한 사건이나 그 사건에 대한 배경 그 사건이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 일반대중들이 취해야 할 태도 등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해설적 기능 혹은 선전·홍보·광고의 기능, 교양이나 교육적 기능 등 유사한 점도 많지만 역할 면에서는 전혀 다르다. 우리 종보의 가장 큰 역할은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고자 함이다. 이는 우리 총지종 교도라면 모두 알고 있다. 총지종보도 창간한지 벌써 6년이 되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기사작성 능력이나 편집 테크닉 혹은 기사내용, 면 수 등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처음 나온 창간호나 지난달에 나온 종보나 별 다른 차이가 없다. 종보는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고자 발행하지만 한편으로는 종단의 얼굴이다. 그런 종보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평가를 외부로부터 받고 있다면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외부에서는 그 이유까지는 알기 어렵지만 사실 내부에서 보면 그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 총지종보는 종보기자 혼자서 만든다. 그것도 통리원 업무를 병행 해가면서, 혼자서 기사 쓰고, 사진 찍고, 취재하고, 원고지에 쓴 기사내용 워드작업하고, 인터뷰하고, 편집하고, 교정보고, 인쇄소까지 가서 인쇄 확인에 신문발송까지, 지금 신문을 담당하고 있는 종보기자에게 정말 격려의 박수를 보내다. 그 험청난 일을 해내며 꼬박꼬박 매월 신문을 발행하는 종보기자의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매달 종보를 받아보지만 총지종보를 사랑하는 교도로서 씁쓸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억지로 타 종단의 종보와는 비교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우연히 타 종단의 신문과 같이 올 때가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된다. 기사부터 차이가 난다. 우선 타 종단 신문을 보면 기사 끝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취재기자 이름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우리 종보에는 취재기자 이름이 없다. 왜냐하면 타 신문처럼 취재기자가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뿐이 때문이다. 또한 신문이 월간으로 나오다 보니 새로운 소식이나 기사는 혹은 정보는 하나도 없다. 모두 지나간 기사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뿐이다. 또 컬럼·사설이나 소설 혹은 학술 연재물 등 전문가가 채워야할 기사가 너무 빈약하다. 특히 기획 특집 같은 것은 기사는 창간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그것은 아마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엄두도 못내는 것 같다. 정말 안타깝다. 이왕 발행하는 종보라면 매달 형식적으로 겨우 발행만 하는 종보가 아니라 일선교화나 종단홍보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이 관심을 보이며 재정이나 인원 면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총지종보가 완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란다.

불교 총지종

서울 경인교구 합창단 모집

히말라야 산중에 있는 아름다운 소리의 새,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진리의 문에 들어간다.
찬불가를 사랑하며 부처님께 음성공양 올릴 가릉빈가를 모집합니다.

· **대상** : 찬불가를 사랑하는 모든 불자
· **문의** : 02-983-1492, 02-922-3677

서울 · 경인교구 합창단장

사설

종단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로

창종 이후 매년 춘·추계 강공회를 개최하여 스승님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종단의 현황문제 및 대책을 논의하고 강구한 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강공회를 통해 종단의 발전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법규를 제정하고 실천방안을 검토하였지만 이번 강공회는 어느 강공회와 비교하여 초임 종의원 및 젊은 세대들이 종의원으로 선임되어 종단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강공으로 회의진행 및 태도에 있어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선임된 의원들이 종단 재정운영 방식과 예산자료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심도있는 심의와 검토가 이루지지 못하여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모든 스승님들이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로 지적한 것은 인재양성과 스승인원 보충의 문제였지만 총론적인 토론에 그칠 뿐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다만 모든 스승님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종법 및 예규를 개정하여 젊은 인재와 스승님의 양성에 대한 대안이 설정되고 시행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한 조직체는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따라 변화되고 발전되고 쇠퇴하기 때문에 모든 조직체는 구성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인재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투자는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약속하고, 생존의 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종단의 발전을 위해 종의원으로 선임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이번 강공회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포교방편을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 역시 그러한 어려움이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래 우리 성장률이 2퍼센트 대에 머물고 내년에도 3퍼센트 정도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의 참사와 보복전쟁으로 인해 낮춰 잡은 예측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 환경에서도 내년에는 월드컵이 열리고 또한 4월 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된다. 이어 연말에는 대통령선거도 있어 사회적으로 여간 어수선하지 않을 듯 싶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맞물린 국제행사와 정치일정은 자칫 거품만 무성하게 날리면서 내실을 약화할 수 있기에 심히 걱정된다. 8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국가경제가 대단한 호황을 누렸지만 결국에는 국가부도의 사태를 맞아 구제금융의 치욕을 겪은 경험을 반복할까 우려된다. 월드컵 행사를 치루면서 다소 경제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그것이 바닥까지 내려간 우리 경제를 얼마나 치켜올릴지는 미지수이다.

또 하나, 내년에는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공직사회부터 이러한 근무제도 변경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아직 정부와 기업계 그리고 노동계가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해 일단은 부분적으로 적용되지만 주5일제 근무제가 곧 사회 전반에 받아들여질 것은 확실하다. 이런 근무제도의 변경은 생활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주말을 이용한 여가생활이나 지식습득 답사여행 가족단위의 체험학습 등이 많아질 것이다. 하여 벌써부터 이런 생활문화의 변화에 조응하는 문화상품이 줄을 이어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없는 소외계층의 박탈감이라는 문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불교계와 우리 종단은 이러한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포교방편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회변화는 곧 대중의 생활에 반영되기 마련이고 이것은 또 신행생활에도 즉각 나타나게 되어 있다. 대중의 생활이 어렵다면 종교는 대중의 복지에 더욱 진력해야 할 것이고 주5일근무제로 인해 소외되는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구 만보사·국광사 매각 결의

총지사 서원당 올해안에 이설불사

제74회 중앙종의회 회의 모습.

제7회 사회복지재단 임시이사회

지난 9월 16일 추계 강공회 중 개최된 제7회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임시이사회에서 혜암 통리원장을 비롯해 원송 총무부장, 지성 재무부장 등 9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2002년 복지재단 예산 심의 △역삼노인복지센터 수탁 재계약에 관한 건 △강남청소년 수련관 수탁에 관한 건 △기타 사무국 운영에 관한 건 등 4개 안건에 관한 심의 및 결의가 있었다.

이번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역삼노인복지센터 수탁 재계약에 관한 건은 재수탁하기로 결의되었으며, 강남청소년 수련관 수탁에 관한 건은 종단의 사정상 차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의되었다.

제100회 원의회 및 제78회 (재)불교총지종유지재단 이사회

지난 16일 제100회 원의회와 제78회 (재)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이사회 연석회의가 혜암 통리원장을 비롯해 12명의 원의원과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총기30년도 추가경정 및 총기31년도 수·지 예산안 심의 △사원 신축 및 부지건물 매입·매각의 건 △연장근무자 임명의 건 △한중일 문화교류대회의 건 등 8개 안건에 대해 심의·결의하고 중앙종의회로 상정하였다.

제74회 중앙종의회

지난 17일 제74회 정기 중앙종의회가 의강 중앙종의회 의장을 비롯해 법공 부의장 등 종의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리원 반야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날 원의회와 재단이사회에서 심의·결의되어 상정된 본년도 추경 및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법황사(광주), 관성사(서울), 덕화사(부산), 흥국사(전주), 정혜서원당(인천)의 신축 및 보수에 관한 현황을 보고 받고, 이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결의했다.

또 총지사 서원당 이설불사를 올해안에 추진키로 하고, 구(舊) 만보사(대전)와 국광사(경주)를 매각하기로 결의하는 등 8개 안건에 대한 심의·결의되었다.

경로의 달맞이 '은빛축제' 한마당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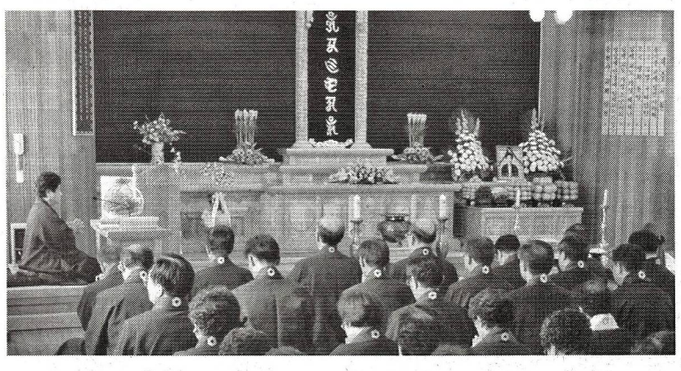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의 소외감을 극복

지난 10월 24일 총지사에서 사회복지법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과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 어르신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화합의 경로잔치 '은빛축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권문용 강남구청장, 이재창 강남구의회 의장 등 500여명의 지역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혜암 통리원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종교계를 비롯하여 사회단체도 우리의 전통적인 미덕이었던 경로효친 사상을 널리 펴고, 더욱 많은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겠다"며 참석한 어르신들에 법신불의 가지력이 함께하길 기원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은빛축제에서는 박노영 할아버지(90세)와 길농선 할머니(91세)가 장수상을, 이철우, 홍윤호씨가 어르신 공경상시상과 저소득, 무의탁 어르신의 소외감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내의 경로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어르신 장기자랑 경연대회와 사물놀이 공연, 기념바자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청신화 지수 49재, 마산 운천사에서



지난 10원 22일 고 청신화 지수의 49재가 혜암 통리원장 및 원송 총무부장을 비롯한 전국 스승과 교도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천사에서 있었다.

고 청신화 지수는 1940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1976년 불교총지종과 인연을 맺어 여러 차례 종의회 의원을 지내시기도 했다. 세수 62세로 열반하실 때까지 교도들 속에서 사셨던 고 청신화 지수는 언제나 스스로 앞장서고, 때로는 친구같이 때로는 어머니 같이 늘 보살들 속에서 사셨던 분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날 고 청신화 지수의 살아생전 교화의 열정과 중생에 대한 자비로움이 연연히 이어지고 있었으며, 고인을 따른 많은 교도들은 고인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기리며 추념추복의 뜻을 가슴에 새겼다.

중앙종의회 초선의원에게 듣는다

지공 정사
밀행사 주교

이번 강공회에서 장시간동안 회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불교총지종의 중앙종의회 초선의원으로서 종의회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종의회 의원이 된지도 얼마 안 되는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오랫동안 의회 활동을 하신 분보다 오히려 종의회의 활동에 대해 평가가 정확할 수 있을것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몇 차례 임시종의회와 중앙종의회를 참석해보니, 시일이나 사안이 촉박하게 일을 추진한 후 종의회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다.

초선의원으로서 종의회에 바라는 점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종의회는 이 종단을 위해 있는 기구다. 이 기구를 제대로 살려야된다. 일선 스승님들의 뜻을 대변해야하는 곳이 종의회다. 종의회 의원의 뜻을 무시하고 일을 추진하는 것은 원칙에서도 벗어나는 것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종의원 자체에도 초선이던 재선이 되었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분명히 알고 회의가 진행되도록 해야한다. 종의원도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요청해서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종의원이 종의원 다운 책임을 다할 때 그 뜻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칙을 지키면 된다. 기구라는 것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면서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원이던 원의원이던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다. 일에는 원칙이 있고 순리가 있다. 그 원칙과 순리를 지키고 일을 하면 가장 무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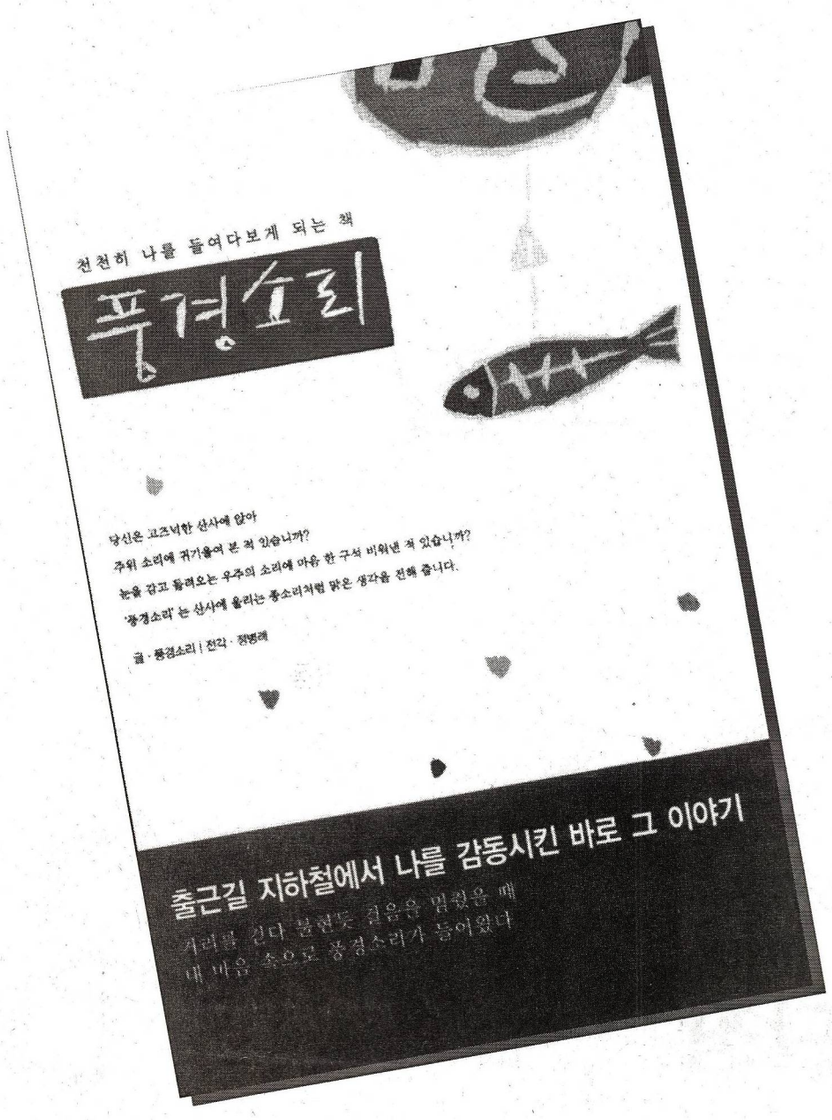
누구나 주어진 의무·책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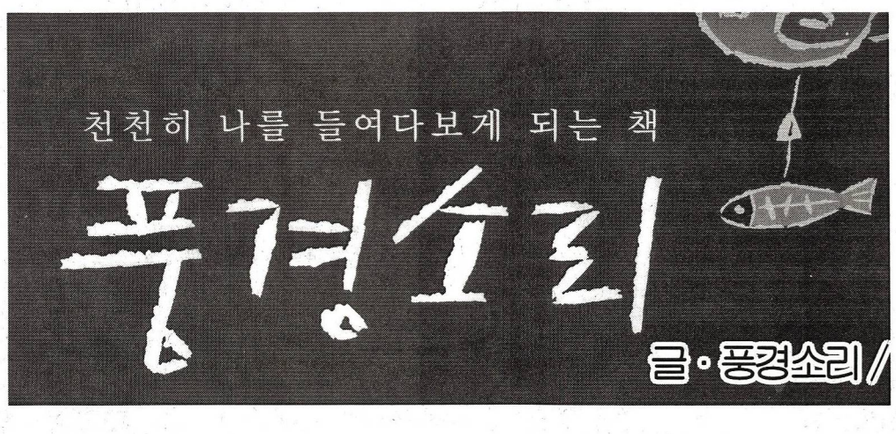
종의회가 되었던 원의회가 되었던 종단에는 여러 기구가 있다. 종의회라는 것은 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곳이다.

종단의 발전과 교화를 위한 안건에 대해 스승님들의 뜻을 대변하고 책임을 지는 곳이기도 하다.

어느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종단발전을 위해 이러한 기구가 구성되어있는 것이다.

집행부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난 후에 안건을 종의회에 상정하면 종의회에서 그것을 심의하고 결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결정된 후에 일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즐거운 사색, 깊어가는 가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나를 감동시킨 이야기, 풍경소리는 산사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복잡한 도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샘터
www.samtoh.com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15
전화 02-763-8961~6 팩스 02-741-7270

그림속의 불교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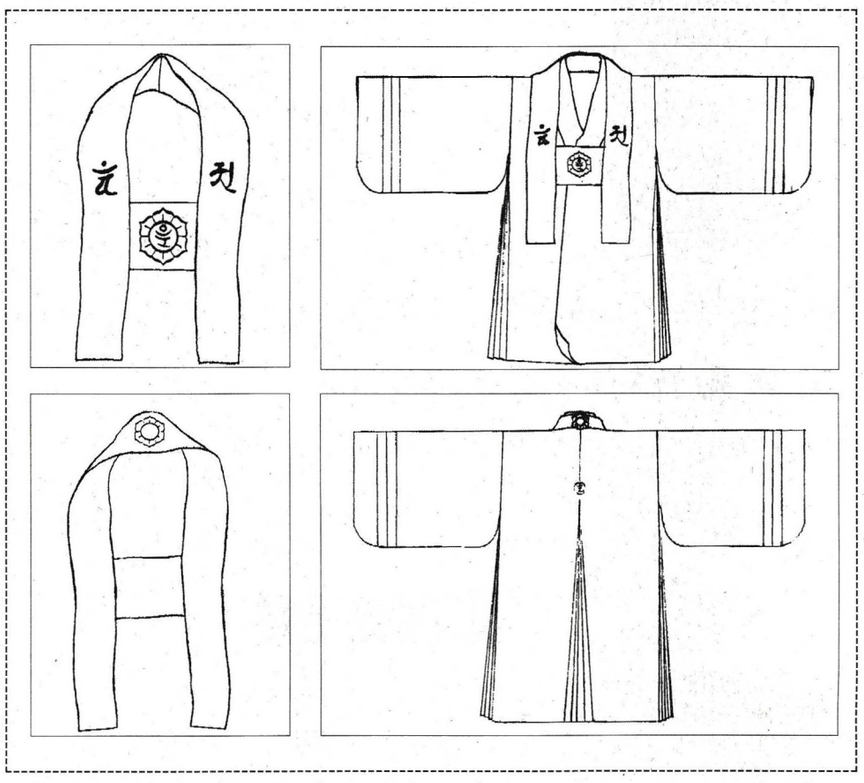
가사공덕으로 목숨구하고 왕후가 된 금화

가사 법의는 大願을 성취하는 큰 옷이다. 승이 가사를 수하고 염송이나 수행을 하면 크게 깨치고 염원을 성취할 수 있으므로 가사를 시주하거나 조성에 동참한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장경 수자함 제16권 제8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사 조성공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상품의(上品衣)를 조성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제왕의 지위에 오르게 되며, 하품의를 조성하더라도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位)에 오른다"고 하셨다.

그리고 "가사는 여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위의이며, 보살이 만행을 부지런히 닦는 법복이므로 가사를 조성하여 발원하는 자는 천가지 재앙이 눈 녹듯 없어지고 백복(百福)이 구름 일어나듯 하며 입거나 걸어 모셔 놓기만 해도 삿된 것이 침범치 못하며 항상 현성(賢聖)이 옹호한다"고 하셨다.



"가사는 여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위의"

또, "염만부인이 가사를 조성하여 지승여래 부처님께 바치고 현세에는 구백 천신의 덕을 입었고, 명종한 후에는 보화(寶貨)를 밟고 구품연대에 태어났고, 정명부인은 가사를 조성하여 명칭여래부처님께 드리고 칠백 천신의 가호를 받았고, 명종한 후에는 연화를 밟고 화엄세계에 나셨으며, 정적부인은 가사를 조성하여 찰가여래부처님께 드리고 오백 천신의 가호를 받고 명종한 후에는 오색상운을 나투시고 극락세계에 왕생하였다"고 하셨다.

옛날에 우진국의 왕은 악업을 많이 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육을 먹는 것을 즐겨서 매일 한사람씩 잡아서 그것을 아홉 번에 나누어 먹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금골장군이라고 하는 무장이 금화라고 하는 십오세 된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장군이 알아보니 내일 왕의 수라상에 자기의 딸을 진상할 차례가 되었는지라 금골장군은 집에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고성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그의 딸이 와서 그 연유를 물으니 금골장군은 대답하기를 "내일 네가 죽어서 대왕의 수라상에 올라갈 차례가 되어서 그러하노라"하고 대답하니 금화는 그 말씀을 듣고 대경실색하여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님 저는 이미 내일 죽을 몸이니 성안을 구경하게 하여 주십시요"하는지라 금골장군이 쾌히 승락하였다.

그리하여 금화는 하녀를 하나 데리고 성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집을 떠나서 약 십여리를 가다가 우연히 스님 한분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금화를 보고 말하기를 "지금 우리 절에서 가사불사를 하는데 아가씨도 시주를 하십시요" 하므로 금화는 그 스님에게 말하기를 "스님 나는 내일이면 죽을 몸인데 가사불사에 시주를 하면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한즉 그 스님이 다시 말하기를 "가사불사에 시주를 하면 원수를 피하고 모든 액난을 면하며 후생에 정인(正因)을 얻어 성불하게 됩니다" 하므로 금화는 그 말씀을 드고 홀연히 마음에 환희심이 나서 그 스님을 따라서 가니 과연 그 스님의 주처인 임원사에게 가사불사를 하는지라 금화는 가지고 있던 금과 은을 스님에게 시주하고 부처님 앞에 가서 향을 사른 후 진심으로 예배하고 가사 삼령(三領)에 통침하고 나서 본가에 돌아와 밤을 지나서 새벽 닭이 울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근심을 하고 있으려니까 그때 조정에서 어사나찰이 찾아와 말하기를 "대왕의 명령이니 금화는 속히 궁중으로 가자" 하므로 금화가 할 수 없이 따라가서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나찰로 하여금 칼로 금화의 목을 베게 명령하였다.

그래서 나찰은 칼을 들고 금화의 목을 쳤으나 칼이 세 동강으로 부러질 뿐 금화의 목에는 상처도 하나 없으므로 재차 칼로 목을 쳐도 또 칼이 세 동강이 날 뿐 금화는 죽지 않으므로 왕은 크게 노하여 친히 칼을 잡고 금화의 목을 쳤으나 역시 마찬가지인지라 이상히 생각하고 금화에게 묻기를 "너는 무슨 술법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 금화는 대답하기를 "나는 아무 술법도 없고 다만 어제 저녁에 가사불사 하는 절에 가서 시주하고 가사삼령에 세 바늘을 통침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왕이 듣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왕후로 삼고자 하는데 너의 뜻이 어떠한가?" 하고 물으니 금화는 다시 대답하기를 "나를 왕후로 삼으시려면 천하인민에게 널리 권하여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게 하고 가사불사를 하게 하고 또 대작불사를 많이 하게 하여 주십시요" 하니 왕은 쾌히 승낙하고 금화를 왕후로 맞아들였다.

가사는 공덕이 무량해서 복이 없는 빈궁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단명한 사람에게는 장수케하고 관액과 모든 부자유한 사람에게는 그 복잡한 일을 없애주고 안온쾌락케 하며 제약이 많이 지옥고를 받게되는 자에게는 제업을 혜택케하여 준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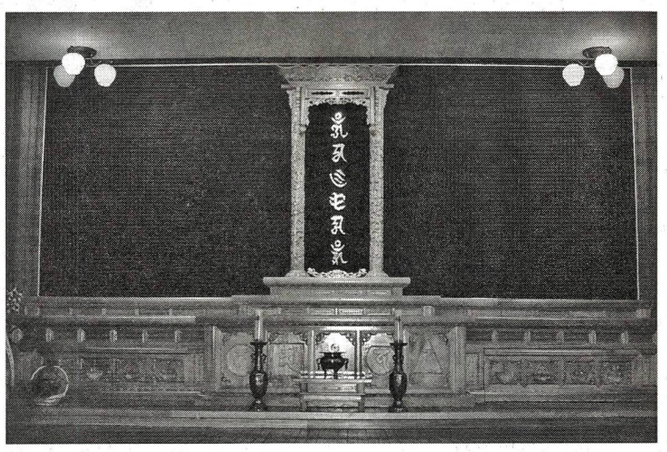
이렇듯 가사불사의 공덕은 참으로 수승하다고 하겠다.

사원은 지금…

마산 운천사 본존봉안불사 성료

지난 10월 22일 마산 운천사 본존 봉안불사가 140여명의 전국 스승과 교도들이 모인 가운데 봉행됐다.

본존 이설 작업은 지난 9월 17일부터 한달여 작업과정을 거쳤 완성되었다. 자석사 김병구 교무와 성화사 이호석 교무가 한달동안 매달려온 땀의 결정체다.



불교 에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라.

어떤 형제가 양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양 도둑(sheep thief)을 의미하는 S.T라는 글자가 문신으로 새겨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보며 양도둑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돌팔매질까지 해댔습니다.

몇 번 그런 일을 당하게 되자 동생은 방안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결국 자살을 택하고 맙니다. 반면 형은 자신이 지난 동안 저지른 죄의 대가라 생각하며 반성하는 의미로 평생 동안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삼십 년이 흘러 그때의 일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세상을 떠났고, 안다하더라도 기억에서 거의 지워지게 될 즈음, 사람들은 그 노인의 이마에 씌어진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 영감이 하는 걸로 봐서는 이마에 씌어진 글은 성자(saint)의 약자임에 틀림없어. 그렇지 않나?" 라고 말하자 모두들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를 성자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경전에도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앙굴리마라입니다.

그는 99명의 목숨을 죽인 살인마로 부처님을 살해하려다 오히려 부처님의 감화를 받고 출가해서는 아라한이라는 성자가 됩니다. 만약 그가 과거의 죄악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결코 아라한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현실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창출하라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가문에 태어났는가가 아닌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라문 계급으로 태어나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고귀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다만 제관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절에 다닌다고 해서 다 불자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생활화하지 않는다면 그는 단지 절에 온 관광객에 불과할 것입니다.

영국의 러스킨이라는 사상가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명령이나 각본에 의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나 운명이나 우연이 시켜서 내가 살아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의 삶이 아닌 신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고, 운명적으로 마지못해 사는 것이고, 아무 의미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수처작주(隨處作主)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의 주인이 되어라 하는 뜻입니다. 연꽃이 악취나는 진흙 속에 뿌리를 내려도 그 환경에 물들거나 탓함이 없이 맑고 향기로운 자태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업보려니' 하면서 과거의 노예가 되거나 남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스스로의 강인한 의지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이 사회의 어두움과 악취를 몰아내는데 우리 모두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양동효 법사〉

과거의 노예가 되거나 남을 탓하지 말기를

정보 다이제스트

◆환절기 감기 예방 및 민간치료법

· 기침 가래가 심한 감기 : 무우를 썰어 꿀이나 흑설탕에 재웠다가 떠먹는다. 비타민C가 많아 특히 소화기 장애를 동반한 감기에 좋다.

또는 손쉽게 배를 강판에 갈아서 가제에 꼭 짜서 즙을 내어 먹어도 된다. 단, 평소에 소화나 장이 약한 아이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기침이 심한 감기 : 호일에 싸서 구운 생강을 가루내어 물을 섞어 마시게하면 기침을 덜 수 있다. 또는 생강을 불에 구워 너무 뜨겁지 않을 정도로만 식힌 다음 목이나 어깨 주변에 올려놓고 문질러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목의 통증을 덜게 하려면 유자를 끓여 그 물을 따뜻하게 마시면 좋다.

제1회 전국불교만화공모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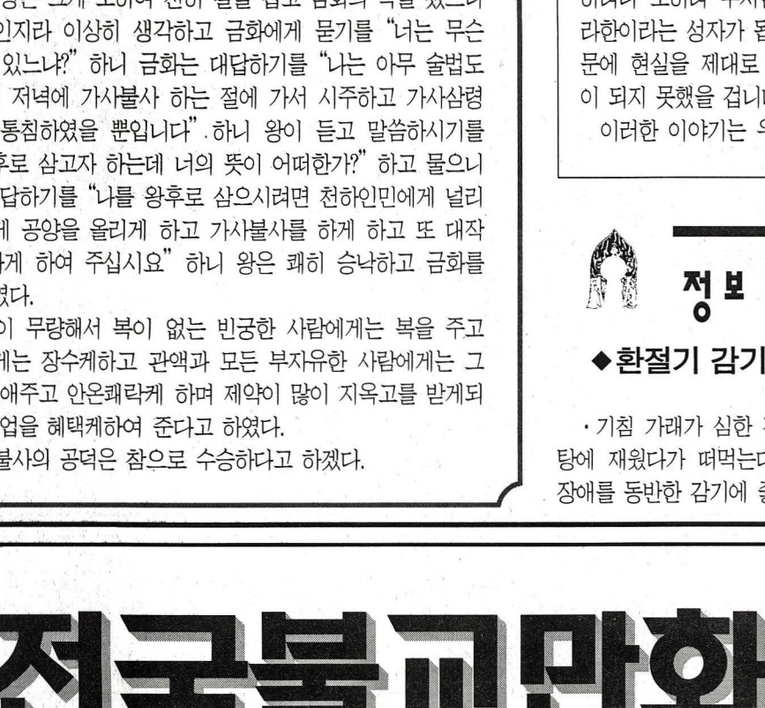
⊙ 내 용 : 불교적 내용이 담긴 모든 장르의 만화
(단편, 네컷만화, 일러스트, 만평 등) (자기소개서 포함)

⊙ 기 간 : 2001년 12월 1일~2002년 1월 20일

⊙ 시 상 : 2002년 2월 24일(일) 오후 3시
(장소 추후 공고)

⊙ 대 상 : 어린이 · 청소년 · 학생(대학생 포함)

⊙ 시상 내역 : 연꽃대상(표창장, 장학금30만원)
연꽃우수상(표창장, 장학금 20만원),
연꽃장려상(2명, 표창장, 장학금 각 10만원)
연꽃 특별상(각 특별부분표창장, 장학금)



⊙ 시상자 공동 혜택 : 불교만화연구소의 다양한 행사와 발행물 등에 무료 참여권, 불교만화동우회 회원 가입.
만화작가의 무료 만화창작교실 1년 통신 혜택, 불교만화 홈페이지 개별 홍보 혜택 등.

⊙ 작품 접수 : 우편접수(2002년 1월 20일 소인 유효)
대구시 남구 봉덕3동 1301-20번지 영남불교대학
불교만화연구소 불교만화공모전 담당자 앞

⊙ 문 의 : 영남불교대학 부설 불교만화연구소
(053-474-0344/016-508-5802)

주최 : 불교만화연구소·불교만화동우회

지상설법

마음의 자유를 찾아

시정 정사
(법천사 주교)

우리 중생들은 나름대로 각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박한 꿈이 있는가 하면 원대한 꿈도 있고, 맨손으로 뜬구름 잡는 황당한 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이 형성되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움직일 때 인연과의 연결입니다. 즉 행위의 결과가 업인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려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인과(因果)의 연속인 것입니다. 좋은 인(因)을 지으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제각각 각자의 판단에 따라 아주 다른 삶이 전개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도 못하고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이 지은 업(業)의 결과를 모두 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이 갈증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들은 물을 마십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고, 주위 온도 변화에 따라 시원한 옷, 따뜻한 옷을 갈아입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위하여 무진 애를 쓰면서도 마음의 갈증은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하고 화내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생겨나는 삼업(三業)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내버려두고 지냅니다.

몸의 불구자보다 마음의 불구자가 세상을 더욱더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흔히 보아 왔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간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면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몸은 살아 있지만 의식이 없으면 죽은 몸이라 하여 안락사를 시키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마음이 주인인데 허상에 불과한 육신에 우리는 너무 연연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졌어도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그 몸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부처님께서 2500여년 전에 육신의 편안함을 버리시고, 마음 깨쳐 그 마음 닦는 법을 우리 중생에게 설하신 것입니다. 말이 쉬워 마음을 닦는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제 자신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제 마음 하나 올바르게 깨치지 못한 주제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게 심히 부끄럽고 창피스럽지만, 제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지상 설법을 통해 올리는 글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래 살기를, 재물이 많기를, 명예가 높아지기를,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장수하고 재물 많고 건강하고 명예가 높다하여 꼭 행복한 것은 아니겠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허나 본능도 지나치면 화가 됩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래를 힘껏 꼭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버리지만 가볍게 쥐면 괜찮듯이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깊고 넓으면 자연히 고기는 생겨나고, 숲이 우거지면 새들은 오지 말라 해도 모여듭니다. 사람 마음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비워버리면 비워 버린 만큼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재물은 칼날에 묻은 꿀과 같아서 한번 입에 댈 것도 못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핥다가 혀를 다친다'고 하셨습니다. 벌이 쉴새없이 꿀을 만들어 저장하지만, 그 꿀은 고스란히 인간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탐하는 재물도 욕심을 부려 모으려 해도 모으지도 못할뿐더러 설사 재물을 모았어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의 척도는 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이 힘들고 괴롭고 힘든 것은 주위 환경 탓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 마음 속의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해 받는 고통이 의외로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셔버리면 시원함보다는 갈증만 나게 하듯이, 욕심도 마찬가지로 부리면 부릴수록 더욱더 우리 삶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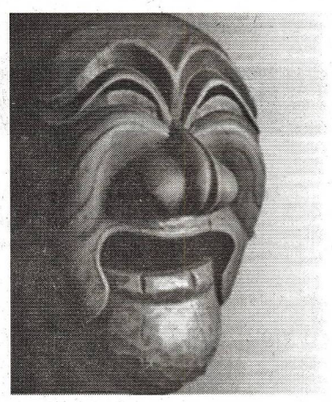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게 아니고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제 큰 아들한테서 휴대폰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힘들고 지칠 때 받은 이 메세지는 지금도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편안함에서 오는 것일 겁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많이 웃으십시오. 저에게 이 세상에 제일 예쁜 것을 골라보라면 당연히 활짝 웃는 보살님들의 얼굴을 으뜸으로 말 할 것입니다. 어쩌다 가족이 모여 코미디 프로를 보게 되면 아이들은 데굴데굴 구르면서 웃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활짝 웃을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웃는 순간만큼은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세상에 온갖 괴로움도 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 재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 것 아니면 욕심내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작은 재물이라도 만족하고 선행을 쌓는다면 쌓은 선행만큼 복그릇이 커져서 원하지 않아도 재물이 따를 것입니다. 꽃에 벌과 나비가 따르듯이 굳이 재물을 쫓지 않아도 재물이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인과응보란 흔히 좋지 않은 일의 결과에 표현하지만, 여러분께서 지은 선업의 결과도 당연히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왕년에 '뭐 뭐 했다'고 과거를 자랑하지만 듣는 사람은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수행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얼마만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며, 보살정신으로 깨어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부처님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재가불자입니다. 명색이 불자라면 뭔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울 때일수록 주위에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백 여 년 동안 세상에 감추어져있던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한 진언을 원정대성사께서 저희들에게 찾아주셨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준제진언과 육자대명왕 진언을 지니고 계신 총지종 보살님들이야 말로 선택받고 축복 받은 분들입니다. 선택받고 축복 받은 사람은 활짝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한 마음은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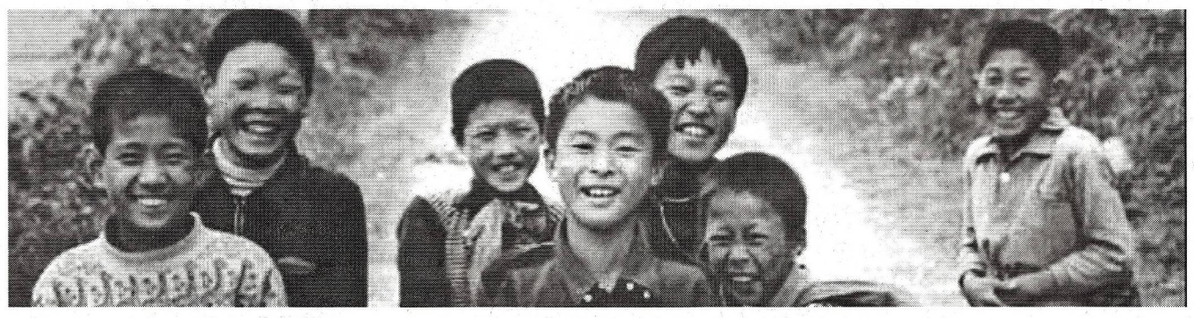
이 만큼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종조님께 감사드리고 밤낮으로 애쓰시는 스승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다보면,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은혜롭고 고맙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좋은 계절 무더운 여름날 나태하고 게을렀던 마음 추스르고, 선근을 심고 마음 닦는 일에 더욱더 전념합시다.

시정 법천사 주교

정정 지난호 지상설법 '행복합니까'는 총지사 주교 법등님이 해 주셨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게 아니고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생활속의 밀교

경전의 가르침은 항상 나의 일상(日常)에 있다

얼마 전 《대승장엄보왕경》을 번역한 적이 있었다. 《대승장엄보왕경》은 내가 몸담고 있는 총지종 종단의 소의경전 가운데 하나인데, 관세음보살의 본심 진언인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의 공덕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다.

나는 전4권의 경전 가운데 제4권을 맡아 번역하게 되었는데, 경전을 번역하는 중에 내 머리카락이 쭈빗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은 어느 경문(經文)이 일순 나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기 때문이었다.

경전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잠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한참동안을 넋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정신을 차리고 조용히 나를 되돌아보았다. 혹시 내가 지금 이 경전의 내용처럼 악업을 지은 적은 없었는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경전(經典)은 내게 이렇게 설하고 있었다.

『만약 상주하는 곳의 재물과 기름, 삼베(麻), 쌀, 콩 등을 훔쳐 사용한 자는 아귀취(餓鬼趣)에 떨어져서 머리카락이 엉클어지고 몸의 털은 모두 일어서고, 배는 산(山)과 같이 크고, 그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으며, 불타서 그슬리고 말라서 단지 해골만이 남는데, 그 사람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보(果報)를 받게 된다. …중략… 만약 승단(僧團)과 스승을 경만(輕慢)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빈천(貧賤)한 집에 태어날 것이며, 태어나는 곳에 따라서는 불구(不具)의 몸으로 곱추나 앉은뱅이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몸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곳에서는 병(病)도 많아 야위어 손발이 구부러지고 절룩거리며, 앉은뱅이가 되어 고름피가 그 몸에 흘러내려서 육신의 살은 떨어질 것이다. 백천만년 동안 이 고통스러운 과보(果報)를 받을 것이다.

…중략… 만약 계(戒)를 얻거나, 공덕(功德)을 얻거나, 지혜(智慧)를 얻고자 한다면, 상주지(常住地)나 재물(財物)을 훔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마치 불구덩이에 상주(常住)하는 것과 같고, 독약(毒藥)에 상주(常住)하는 것과 같다. 중담(重擔)의 독약(毒藥)과 같은 것은 능히 치료하여 구제(救濟)할 수 있지만, 만약 상주지(常住地)의 물건을 훔쳐 사용하는 자는 능히 구제할 수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과보인가. 정재(淨財)를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겠다. 사람에 따라서는 경전의 내용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과법을 믿는 우리 진언행자로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다. 과장되고 허황된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종교인, 신앙심 등을 내걸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공사(公私)에 있어 단호한 자세야말로 인간이 가지는 최소한의 양심이요 종교인의 기본 심성이라 하겠다.

지도급 인사들의 각종 비리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경전에서 언급한 악업들을 스스럼 없이 짓고 있다. 매사 공사(公私)에 철저하지 못한 결과이다.

악업의 과보를 무서워 하기 전에 삿된 자신을 채찍질하고 정재(淨財)에 엄격히 하며, 선업을 짓고 인격을 완성해나가는 자세가 지극히 필요한 때이다. 그것이 최소한의 악업을 짓지 않는 길이다.

그 경문(經文)은 나에게 또하나의 커다란 생활법문(生活法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경전의 가르침이 항상 나의 일상(日常)에 있는 것이니까.

〈법장원 법경〉

아는만큼 보이고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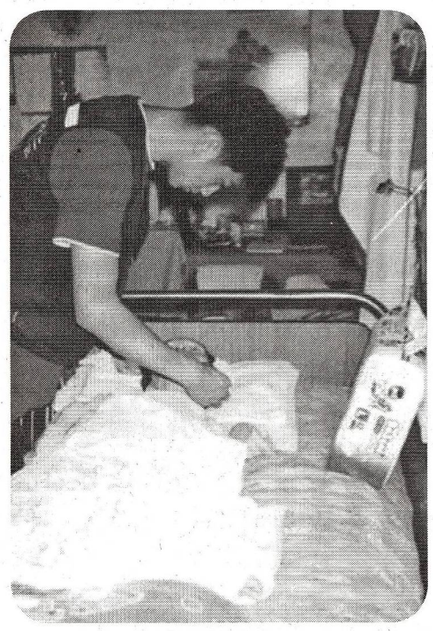
서원(誓願)

이웃 위한 대서원으로 진언염송 행하여야

서원이란 원(願)함을 일으켜서 성취하려고 맹세하는 것이다. 우리 불가(佛家)의 사홍서원과 약사여래의 12원, 아미타여래의 48원, 석가여래의 5백대원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일체중생을 구제하기 전에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아미타여래의 대원(大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종단을 창종하신 종조 원정대성사의 대비원은 우리 진언행자들에게 더욱 큰 법문으로 와 닿는다. 해방과 6.25 동란으로 도탄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구국도생(救國度生)'의 대비원(大悲願)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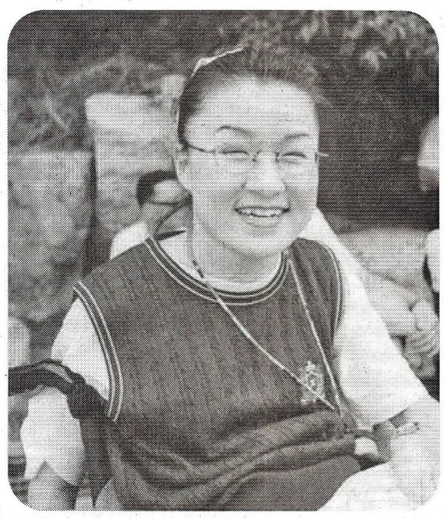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먼저 발심과 깊은 신심을 갖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따르는 것이 일체중생을 위해 대서원을 발하여서 용맹정진과 일체회향하는 수행자세이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소원성취가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한 대서원으로 진언염송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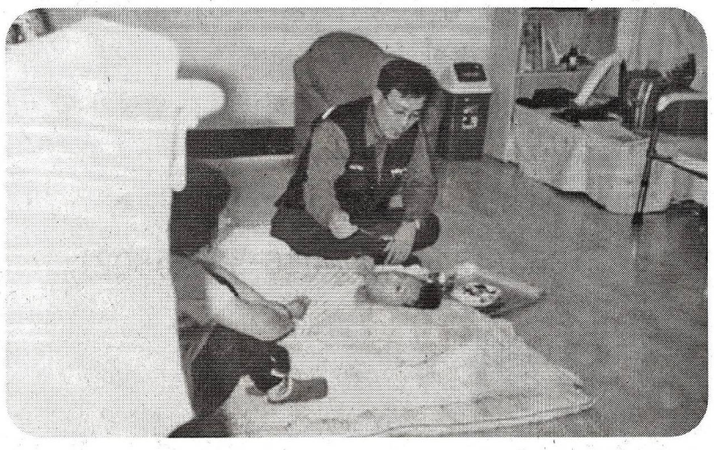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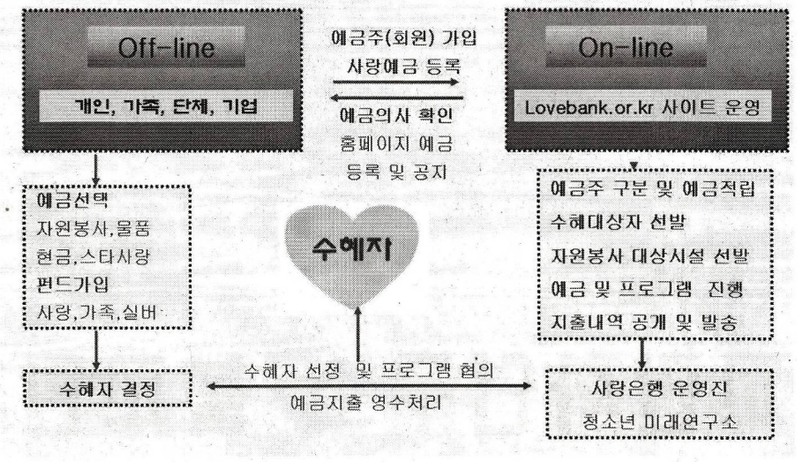
꿈 희망 사랑
Lovebank 사랑은행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예금하세요

사랑은행(Lovebank.or.kr)은 On-line과 Off-line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간사랑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직접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세상과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미래연구소
Institute for Youth Future
www.lovebank.or.kr

기획특집

한나라당 불자회장 김태호 의원 특별 대담

불교총지종 창종 30돌을 맞아 기획특집으로 각 정당 불자회 등 우리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진 신행단체들을 선별하여 대표 대담을 연재합니다.

이번 호는 한나라당 불자회 회장 김태호 의원과의 대담을 게재합니다.

이번 대담은 지난 10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동석 사무국장과 있었던 내용을 요약한 글입니다. 약 2시간동안 진행되었던 이날 대담은 이태호 보좌관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편집자 주〉

국회의원 김태호 의원 약력

▷1935년 경남 울산 생
▷1955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
▷1976년 경기도 인천시 시장
▷1982년 대통령비서실 정무 제2수석비서관
▷1983년 경기도 도지사
▷제 12대, 13대, 15대, 16대(現) 국회의원
▷1988년 13대 국회 정각회 회장
▷1989년 제52대 내무부장관
▷1993년 불교방송 사장
▷2000년 한나라당 의원불자회 회장(現)

질의 : 안녕하십니까. 뵌지 오래되었습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하신지요?

▷부처님의 가피 덕분인지 건강하고 의정활동 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질의 : 불교방송 사장으로 재직하실 때 여러모로 어려웠던 방송국 운영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점이 새롭습니다. 당시 사장으로 있으면서 안팎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굳건히 지키셨고, 94년 개혁불사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으리라 보는데, 그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불교방송은 1987년 14대 노태우대통령 후보시절에 민정당에서 공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 후 불교방송 개국을 허가해 줬는데, 조계종 사태로 불교방송이 1년 이상 진척이 안됐었어요. 그후 불교계에 독려해서 90년 5월 개국하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장상문 사장과 서의현, 그때당시 종단협의회 회장스님이 함께 모금을 하고 해서 개국하게 되었던 거예요. 김영삼 후보시절에 부산 광주 등 4개 지국 설립을 공약했어요. 다른 후보들은 11개 지국설립을 공약했어요.(정주영 김대중 등) 실질적으로 2개가 개국을 했지요.

98년 16대 대통령 선거 직후 불교계에서 고발을 했어요. 불교방송 사장 당시에 횡령을 했다고 말이죠.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사실을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전연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잖아요. 이일은 세계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내가 최초의 불교방송을 개국할 때 공약을 한 장본인이다. 불교방송을 만들어낸. 불교계에서 20년 동안 숙원사업을 아무도 안한걸 노태우 대통령 때 공약으로 걸어 이루어낸 거 아닙니까. 조계종에서 20년 동안 개국을 위해 냈던 자료가 수레로 한수레가 되는데, 남아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방송 만들어야되겠다 생각해서 공약으로 걸었던 겁니다.

그래도 마음 고생은 했지만은 다 벗어지고, 지금은 오히려 신심이 더 돈독해졌습니다.

질의 : 정확하게 불교방송 사장으로 재직한게 언제였습니까?

▷93년12월에서 95년 5월까지입니다. 1년 6개월이지요.

질의 : 의원님께서는 13대 국회 정각회 회장으로도 지내신 걸로 아는데, 우리 불자의원들의 모임인 국회 정각회의 요즘 활동은 어떠한가요?

▷정각회가 정식 출범한 것은 12대 국회 때 권익현 의원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정각동호회로 모임으로 있다가 12대 국회 때 정식출범했지요. 13대에는 제가 회장을 했구요, 14대에는 서석재 의원이 회장을 지냈습니다. 15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정각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어요. 15대 이전에는 여야가 합해서 활동을 하다가 15대에 갈라져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16대 들어와서는 작년에 민주당에서 정각회 회장 문제로 먼저 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정각회를 구성하기전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지금 회장을 누가하고 결정할 때가 아니다. 먼저 입회원서를 돌려서 불자회원들을 모아보고 그러면 그 안에서 회장 얘기도 자연 나올 거 아니냐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수순아닙니까? 지금 정각회는 연결되는게 아니고 대(代)별 정각회예요. 회칙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원의 구성이 되고 7, 8월정도 되야 되는데, 6월에 왔길래 입회원서를 돌리자. 그런데 입회원서 돌리는데 합의를 못해서 16대 국회 정각회는 구성을 못했죠. 그러고나서 모 신문사 인터뷰에서 정각회 회장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건 반대다. 이건 신행단체다. 회장은 추대하는 것이지, 신행단체 회장을 양당에서 내놓고 뽑고 하는 것은 나는 반대할 뿐만 아니고, 이것은 정치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거 안한다. 정각회가 정치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민주당 연등회 회원이 11명이었는데 지금은 18명으로 늘었어요. 그중 모 의원은 언론을 통해 스스로 종교를 공개하고도 한불회에 들어와 있단 말예요. 이렇게 정각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현재는 정각회가 구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질의 : 한불회 의원들은 정기적인 행사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불자회하고 한불회하고 매월 사찰 순례를 해요. 그 다음 간담회 형식으로 모임을 갖고 불교현안 문제들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질의 : 신행모임이긴 하지만 정치공간인데, 뜻을 같이하는 불자들의 뜻을 묶어 내서 나름대로 정책을 마련하는 성격이 되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 국회 정각회는 여야 간사가 있어서 불교계 현안문제를 받아 가지고 논의하는 등 불교계와 긴밀하게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여야 관계없이 잘 진행되었죠. 그런데 좀전에 말한 것처럼 15대 들어서 이것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바람에 불교계에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자기 당에 이익을 위해서 하다보면 신행단체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각 당에서 정치적으로 파고들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 중에 사은(四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나라에 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은혜, 스승에 대한 은혜, 도반에 대한 은혜, 그 다음이 나라에 대한 은혜인데, 이 나라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위정자들이 불교를 호국불교라고 한 것은 잘못입니다. 나라에 대한 은혜는 체제에 대한 지지가 아니거든요. 정파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이 나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국토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불교는 위정자들 편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불교는 너무 정치에 휩쓸려있기 때문에 혼돈이 되고 있는데, 불교의 색깔을 들어 내놓고 불교는 불교대로 발전해 가고, 국가는 국가대로 발전해 가는 거지 불교가 정치에 휘슬리던지, 정치가 불교에 휩쓸려 버리면 이것은 둘 다 잃어 버리게 됩니다.

고대 인도에서도 야쇼카왕 때가 가장 평안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자비나 평등사상을 잘 정치에 원용을 하면 백성들이 지금보다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 사상으로 돌아간 정치를 해야되겠지요.

눈이 내리는 가운데 성철스님 생가 복원식에 참석한 장면.

정각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경계해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혁을 하는 세력이 보수가 가야할 길
종교간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핵심을 풀어 나가야
종단마다 나름대로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특성화돼야

질의 :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계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계파간의 갈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불거져 나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자의원 모임이 그런 계파정치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라잡이가 될 수는 없는지요?

▷지금 시대적 요구가 정책집단으로서의 정당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보수정치, 계파정치, 패거리정치, 이런 것은 이제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정책우선을 하자는 세력이 보수. 또 하나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개혁을 하자는 세력이 진보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털어 경험하지 않은 세력이 개혁에 성공한 예는 더 뭅니다. 다만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보수를 잘못하면 수구(守舊)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는 수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보는 상당히 개혁적이고, 보수는 수구적인 세력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시행착오를 들 겪는 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수라는 것은 경험을 바탕으로한 개혁을 하는 세력이 보수가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이라면 보수가 자랑스럽습니다. 다만 경계해야할 것은 수구화 될 수 있는 가능성. 수구는 경계합니다.

질의 :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화통일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아닙니까? 보안법을 철폐하자는 것은 그 중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50년 동안 부르짖은 것이 보안법 철폐 아닙니까. 과거 정권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일부 자의적 해석을 해서 인권을 유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찬양고무죄 같은거 말이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배제를 해야지 보안법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보안법철폐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보안법안에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던지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조항은 개정할 필요가 있지요.

질의 : 앞에서도 잠깐 말씀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의 실망스러운 정치인의 모습에서 국민들에게 불자 의원들만의 어떤 선언이라도 있어야되지 않나 생각되는 돼요.

▷혼돈의 정치시대가 지나고 나면 불자의원들이 해야할 몫이 있다고 봅니다. 부처님 말씀에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 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정치집단만은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묵빈대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모함하고, 시기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 가서도 묵빈대처 해야해요. 지금은 치고 받기식이거든요. 지금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묵빈대처 해야 시대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반성의 시대가 오지 않겠나 봅니다.

질의 : 화제를 바꾸어서 종교간의 갈등이 극심하면 이번에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듯이 미국참사에 뒤이은 보복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사회 역시 그런 조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개신교계의 지나친 독선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주시의 개신교계가 원주경찰서 내 경승실에 불상을 모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문제삼아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의원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종교를 접근하는 것은 가장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잘못된 종교관을 가진 신도들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 청와대의 불상을 옮기는 사건이라든지, 17사단 훼불사건이라든지, 지금 근대사에 들어와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모든 국민들은 원효의 화쟁사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내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 종교다원주의사회가 발전할 수 있어요. 내 종교만 중요하다는 종교이기주의에 빠지게되면 자칫 종교간의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불자들은 그러한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과 맞대응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불자들이 굳건히 불자의 길을 가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 봅니다.

종교간의 갈등으로 비화해 나가지 말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의 핵심을 풀어 나가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 불자들의 내부 결속과 신행관을 재정립해서 불교인들의 올바른 길을 가면 스스로 없어지리라 봅니다.

질의 : 정치와 권력은 사실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대권에 대한 의사가 없으신가요?

▷언젠가 한 분은 불자대통령이 아니고, 불자적 소양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민족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지역간의 갈등을 조금은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제행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때에 맞는, 그 역할에 맞는 사람과 역할이 있을 때 다 임무가 주어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욕심을 다 버리고 세상이 밝고 사람살만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그런 일이 있다면 일조하겠습니다.

질의 : 김태복 장군 사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 불교계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한불회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김태복 장군이 군법당을 건립하면서 받은 시주금을 황동환 대령의 음해성 투서에 의해 뇌물로 규정하면서 양심적인 장군이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옷을 벗은 억울한 사건의 전형입니다. 특히 군검찰의 무리한 법적용과 일방적인 판단, 그리고 군사법원에서의 증인채택의 불공정성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는데도 끝까지 시정하지 않은 결과로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봅니다.

시주금을 뇌물로 규정한 군검찰과 군사법원 판결은 종교의 자유와 활동을 제약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헌금이나 시주금, 보시금을 뇌물로 규정한다면 어떻게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김태복 장군의 명예 회복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국방장관에게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질의 : 종교계 지도자나 불교계 지도자로서 정치계의 지도자를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불경 중에 불소행찬(佛所行讚)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구는 국왕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해서는 안되고, 다만 국왕은 덕 높은 비구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대목이 있다. 이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 : 정치인들이 불교계에서 대중이 많이 참석하는 큰 행사 많이들 참석을 하시는데, 한불회 회장으로서, 불자의원으로서 군소종단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년 초에 각 종단 지도자를 방문하면서 그의 대부분 방문했어요. 다만 초청을 안 해줘서 못가는 거지 안 가는게 아닙니다. 초청을 안 해주면 몰라요. 총지종도 언제던지 초청해 주세요.

질의 : 마지막으로 불자와 종단발전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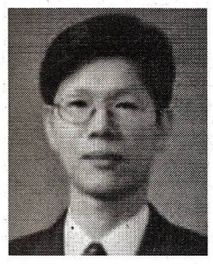
▷이젠 갈등의 시대를 마감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를 접고, 화합과 조화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불자들이 역할을 해 줬으면 합니다. 참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참고 용서하고, 그것이 자비 아니겠습니까?

종단도 작건 크건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종단으로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바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여 원만성취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세상읽기

분노와 인욕



〈유동호 법사〉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진리를 깨달아 행복한 삶을 누리게끔 하는 종교입니다. 깨달음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명료한 결택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또 성내지 않는 종교, 즉 평화의 종교입니다.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이 공유하지 못했다고 그들을 질책하거나 무너뜨리지 않고 넉넉히 받아들여 기다려 줄줄 아는 인욕과 관용의 종교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일깨워도 주지만, 때로는 그 잘못을 감싸 안아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같은 방향, 즉 정법으로 나아가기를 도모하되, 그 일 또한 결코 짧은 시간에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는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과보도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는 적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신체적으로 표출된 행위가 타인에게 보다 큰 영향을 끼침은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이나교의 경우에는 몸과 입과 마음의 행위 가운데서 몸으로 행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밟혀죽을지도 모르는 작은 벌레들을 치우려 빗자루로 앞을 쓸며 다닌 그들의 행동이 한편으론 이해가 됩니다.

불교 역시 '살생을 멀리한다'는 항목으로 시작되는 5계의 내용과 순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신체적인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신체적인 행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나 근본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는 마음속 생각을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여기며, 따라서 중시합니다. 결과보다는 '의도'를 중시한다는 말입니다.

「고의로 행한 일은 반드시 그 갚음을 받나니, 혹은 현세에 받고 혹은 후세에 받느니라. 만일 고의로 행한 일이 아니라면 그 과보는 없다」라는 중아함경 사경(思經)의 표현은 마음 속 '의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단적인 구절입니다.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욕을 하거나 주먹을 뻗어내지 않아도 일단 그 마음속에 화가 일어났다면, '화를 낸' 것이 분명합니다. '간음하려는 생각만 해도 간음한 것'이라는 기독교 성경의 입장과 같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화를 냈다면 그 화낸 행위에 대한 과보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통이 제일이라던 목련존자도 단지 마음속으로만 일으켰던 화의 과보를 어찌하지 못하였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은 불충분합니다. 생각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테러를 당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의 심정을 이렇게 잘 묘사할 수가 있을까? 인생의 행로를 바꾸어서라도, 설사 그 때문에 자신이 더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지라도, 목석이 아닌 바에야 그와 같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당하여 복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라나의 결연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전연 존자는 그런 인지상정의 마음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써 그치지 않는다'는 통찰을 갖추고 있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가전연 존자는 이곳에서 보다 완벽한 복수의 방법을 알려주는 듯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겪은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게 하면서도 자기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는, '완전복수'의 길을 말입니다.

그것은 그를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냥 놔둔다는 표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세월'이란 이름의, '무상(無常)'이란 이름의 하수인으로 하여금 그를 죽이게 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미워서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든다면, 제 손으로 그런 험한 일을 하여 창살에 갇히기보다는, '세월'에게 시키자. '세월'은 충실한 나의 종복이라. 자신이 맡은 임무를 어김없이 실행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나를 위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하수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 역시 끝내는 아무 것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버릴 가여운 존재, 구태여 내가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독히 화가 날 때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생각하라.'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금언입니다.

> **"아무리 미워도 그 역시 아무 것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져버릴 가여운 존재"**

외도들이 사는 곳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제자나 심지어 게으른 제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모든 존재에 대하여 한없는 사랑으로 대하는 분, 사람들이 당신의 뜻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더라도 오히려 그들을 연민하는 분으로 믿어지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런 부처님도,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화내어 싸우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깊은 회의에 잠기셨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이 세상에 머물고 계시지만, 서로 싸우는 제자들은 부처님을 떠나게 합니다. 부처님을 쫓아내고 불법을 소멸케 하는 것은 외도가 아니라, 인욕하여 화합하지 못하고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이름뿐인 불자들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코삼비 비구들을 떠나 파치나방사숲에 이른 부처님은 그 곳에서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사이 좋게 정진하는 아니룻다 등 세 명의 제자들을 보시고서야 비로소 흡족해 하며 법을 설하십니다. 비록 세 명이라는 적은 숫자이고, 또 법에도 모자란 부분이 있는 미완성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야말로 부처님의 뜻에 맞는, 부처님을 머물게 하고 말씀하시게 하는 진정한 불자였던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항상 머무른다는 것이 결코 목석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때 기뻐하고, 화낼 때 화내어 후회하지 않는 마음을 지닌 분이 부처님이라면, 크게 잘못된 이해일까요?

부처님에 대한 환상이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볼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정수일: octagonp@hanmir.com

불교방송 라디오법회 설법집 1

"이제 감로의 문이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듣고 낡은 믿음을 버려라" 〈율장 대품〉

이 말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녹야원으로 설법을 하러 떠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다. 그것은 두 말이라도 더 제도하기 위한 대자대비의 발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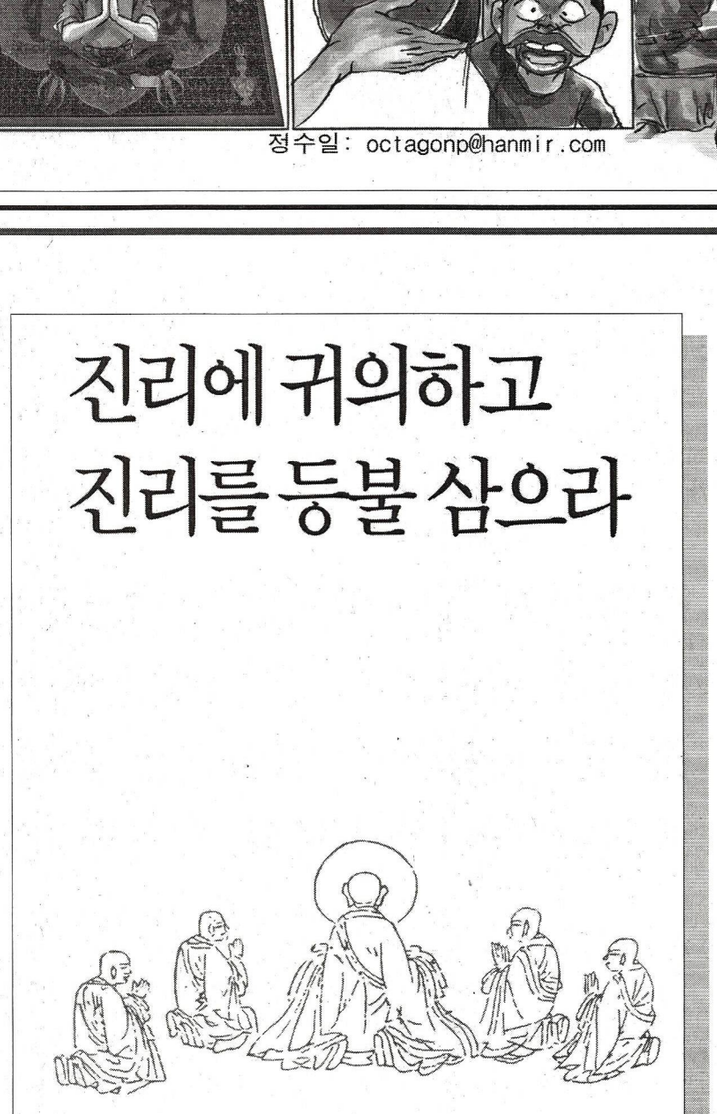
불교방송이 개국 이래 매주 일요일에 '라디오법회'를 편성해서 방송해온 것도 바로 이같은 부처님의 대비 구세 원력을 본받기 위한 것이었다.

1990년 5월 개국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방송한 라디오 법회에는 수많은 고승과 대덕스님들이 법사로 출연하여 감로의 법문을 설해주었다. 그러나 이 설법은 라디오의 특성상 기록은 남기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

그래서 착수한 것이 〈불교방송 라디오법회 설법집〉출간이다.

이 책은 그 중에서 1차로 50인의 고승과 대덕의 설법을 모은 것이다.

〈서문 중에서〉



신국판 양장본 577면/ 값15,000원
보급처:불교방송 포교사업팀
전화 : 02-705-5308

http://bbsfm.co.kr 불교방송 홈페이지에 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불교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FM-101.9 MHz, 부산 FM-89.9 MHz, 광주 FM-89.7 MHz, 대구 FM-94.5 MHz, 청주 FM-96.7 MHz

'자비의 말씀' 모은 '풍경소리' 단행본 발간

10월 19일 기념회 정병례씨 작품 삽화로 운치 더해

바쁜 아침 출근길 코 앞에서 닫히는 지하철 문을 손으로 치며 돌아설 때, 밤늦은 귀가길 피곤에 지친 심신으로 지하철역에 들어설 때 그곳에는 '자비의 말씀'이 있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이하 풍경소리 , 대표이사 서성운 삼천사 주지)는 2년 여 동안 지하철에 운영해 왔던 포교 게시판의 내용을 묶은 모음집 '풍경소리' 출판 기념회를 지난 10월 19일 조계사 법당 앞 삼오모텔 1층에서 가졌다.

풍경소리가 처음 지하철 게시판을 통해 포교를 시작한 것은 1999년 7월. 그동안 수필가 맹난자, 서동석, 소설가 김성동, 정찬주, 이재운, 등 18명이 '자비의 말씀'에 글을 올렸다. 전적으로 창작인 작품도 있고 불경 설화 등에서 따온 글도 있었다. 전각으로 유명한 정병례씨의 작품이 삽화로 사용돼 운치를 더 했다.

모음집 풍경소리는 지난 9월 28일 ㈜샘터에서 출간되어 10월 4일부터 인터넷 서점 및 일선 서점에 배포, 관매되고 있는데 2~3일 만에 재주문이 들어올 정도로 서점가에서 주목받는 책 중의 하나가 되고있다.

한편 풍경소리와 ㈜샘터는 지하철 포교게시판 협찬 사찰 및 주요 사찰에 모음집을 보내고 단체 구입 시 할인해 주는 등 법보시용으로 활용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영축총림 통도사

1356주년 개산대제 열려

경남 양산 영축총림(靈鷲叢林) 통도사(방장 월하)는 개산 1356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제'가 24일부터 이틀 간 경내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24일 통도사 대웅전 앞의 괘불봉안에 이어, 개산대제 및 사생대회, 경로잔치, 공연, 부도헌다, 부처님가사 및 자장율사가사 친견, 점등 등이 이어졌다. 25일에는 설법전에서 법요식에 이어, 사찰유치원생의 재롱잔치, 합창제 등이 이어졌다. 경내 성보박물관에서는 괘불탱 특별전과 고승들의 선묵전이 열였다.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15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으며, 25일(음력 9월9일)이 산문을 연 날이다.

불교진각종 제9대 총인에 혜일종사 추대

제327회 정기종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혜일 종사

불교 진각종 제9대 총인에 혜일(慧一) 종사가 추대됐다.

불교 진각종은 지난 10월 19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 내 회의실에서 인의회(원로회의기구)를 열고 전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장과 통리원장 등을 역임한 혜일 종사를 제9대 총인으로 추대했다.

진각종은 이날 인의회에 앞서 전체 종의회(종단 의결기구) 의원 37명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제327회 정기종의회를 열어 출석의원 만장일치로 혜일 종사의 총인 추대를 의결했다.

진각종 제9대 총인으로 추대된 혜일 종사는 1934년 생으로 지난 1965년 학교법인 위덕학사(회당학원 전신) 감사를 역임했으며, 통리원장과 회당학원 이사장, 종학연구위원, 종의회 의원, 인의회 의원 등 종단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덕망있는 원로스승으로 종단 내의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 진각종은 제8대 각해 총인의 임기가 오는 11월27일로 끝남에 따라 이날 혜일 종사를 차기 총인으로 추대하고 추대법회 일정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제4차 한·중·일 북경회의 개최

혜암 통리원장 한국측 대표단으로 참가

한·중·일 불교의 유대강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제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 북경회의가 지난 10월 26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북경에서 개최됐다. 26일 북경 천륭왕조호텔에서 열린 4차 불교우호교류위원회의에서 한국측은 한국불교수행체험을 위한 일본 수행단 초청과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 불교계의 역할을 논의했다.

또한 불교와 환경보존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각국 승려들의 환경사진 150여점을 전시한 환경사진 전시회와 국제학술강연회, 세계평화기원법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한국측은 조계종 승려를 비롯 110여명의 대표단과 참관단이 참가했다. 불교총지종은 혜암 통리원장을 비롯해 원송 총무부장, 지성 재무부장, 이중석 교무가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폐과 논란

동국대 불교아동학과가 내년부터 유아교육과로 명칭을 바꿔 학생을 선발한다. 최근 학교 당국은 교육부로부터 불교아동학과를 폐과하고 유아교육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졸업생과 재학생 스님들은 9일 관련학과 교수, 학장, 부총장을 면담한데 이어, 지난 12일 송석구 총장을 면담하고 '불교아동학과의 환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동국대 불교아동학과의 폐과에 따른 호소문'을 전달하고 강력 항의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과 종립학교관리위원회를 방문,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전달했으며 종단차원에서 관심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스님들은 '호소문'을 통해 △불교아동학과로의 환원 △불가피할 경우 불교유아교육학과로의 전환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학교당국은 학과명칭을 변경한 것은 건학이념을 보편화하고 생활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불교유아교육학과라고 하는게 원칙이지만 교육법상 특정 종교명칭을 사용하기는 힘든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현실적으로 유아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졸업생들의 진로를 더욱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님들의 입장은 다르다. "불교유아교육 현장서 일할 인재양성을 목표로 세계 유일의 불교아동학과를 설치 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왔는데, 단지 유아교사자격증을 위해 불교아동학과를 폐과하는 것은 일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단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국 불교만화공모전 개최 예정

적극 신행활동으로 변화되길 바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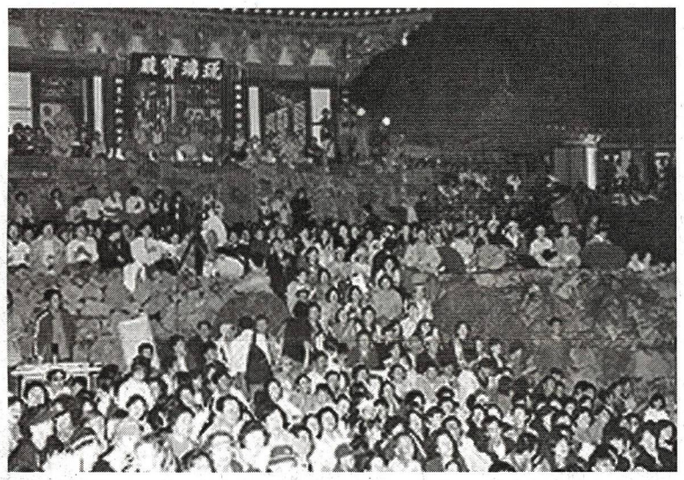
교계 최초로 불교만화공모전이 개최된다. 불교만화연구소(소장 김선아)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라 많은 이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02년 1월20일까지이며, 어린이·청소년·대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불교만화연구소는 2000년 10월 1일 개소하여 지금까지 불교계에서 가장 강한 특성과 활발한 활동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몇 번의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은 연구소의 필요성과 미래의 불교를 위해 중요한 부분임을 확인하고 후원회까지 결성되었다.

김선아 소장은 "이번 행사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수동적 신행활동에서 적극적인 신행활동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불교의 발전과 어린이·청소년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더욱 다양한 아이디어와 활동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곡사 「낙엽축제」 개최

가을 산사음악회 포교효과 기대



〈청량사를 가득메운 4천여 관중〉

단풍이 절정을 이뤄 가을 정취가 한껏 깃든 산사(山寺)에서 낙엽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낙엽축제가 마련돼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포교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산인 천년고찰 마곡사(麻谷寺)는 가을철 산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다음달 18일까지 사찰 일원에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함께 낙엽축제를 개최한다.

또한 17일 오후에는 마곡사 경내에서 성악가, 국악인, 스님 등이 참여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포교에도 한몫을 크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5일 열린 청량사 '천년의 속삭임-바람이 소리를 만나면'은 말 그대로 부처님 회상에서 펼쳐진 대중을 위한 환상의 특별무대였다. 이날 음악회에는 무려 4천여 관객들이 몰려 감동을 주기도 했다.

두레와 떠나는 이달의 문화기행

▷ 단풍산책으로 돌아보는 남산의 자연과 문화
날 짜 : 2001.10. 31(수) 14:30
출 발 : 충무로역내 대한극장 방향 매표소 앞(지하철 3,4호선)
답사지 : 한옥마을·와룡묘·안중근 기념관·팔각정 등

▷ 단풍숲이 아름다운 창덕궁의 자연과 문화
날 짜 : 2001.11. 3(토) 14:30
출 발 : 창덕궁 정문앞(지하철 3호선 안국역 바깥)
주 제 : 창덕궁의 자연과 문화

▷ 기차타고 떠나는 늦가을 억새밭 기행
날 짜 : 2001.11. 4(일) 07:30
출 발 : 청량리 기차역 2층 대합실(지하철 1호선 바깥)
답사지 : 강원도 정선 민둥산 억새밭과 돌리네 지형
참 조 : 왕복 기차이용·등산차림·따뜻한 식수준비·왕복 3~4시간 산행

▷ 견훤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날 짜 : 2001. 11. 11(일) 07:00
출 발 : 서초구청 정문앞(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바깥 50m지점)
답사지 : 견훤산성·견훤사당·궁터마을·금하동굴· KBS 〈왕건〉 촬영장 등
참가비 : 3만5천원(점심·교통비·보험료포함. 학생3만3천원, 비회원3만7천원)

▷ 조선왕조의 왕릉을 찾아서
날 짜 : 2001. 11. 18(일) 09:00
출 발 : 강변역내 터미널 방향 매표소 앞(지하철 2호선)
답사지 : 사릉·광해군묘·태릉·단풍숲 등

▷ 슬프도록 아름다운 새만금의 추억 만들기
날 짜 : 2001.11. 25(일) 07:00
출 발 : 서초구청 정문앞(지하철 3호선 양재역 8번출구 바깥 50m지점)
답사지 : 새만금 갯벌·동진강 철새·계화도 억새밭·매창 유적 등

* 참가방법 : 전화(712-5812.3) 예약 후 온라인으로 입금
http://www.ngodoore.com
e-mail : doore@ngodoore.com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회 장 김 태 호 의원
간사장 김 용 균 의원

강신성일 의원	김 학 송 의원	이 상 배 의원	정 문 화 의원
김 기 배 의원	도 종 이 의원	이 원 형 의원	정 재 문 의원
김 영 일 의원	박 헌 기 의원	이 인 기 의원	최 돈 웅 의원
김 용 갑 의원	손 희 정 의원	이 해 봉 의원	최 병 국 의원
김 진 재 의원	엄 호 성 의원	임 진 출 의원	하 순 봉 의원
김 찬 우 의원	윤 두 환 의원	전 용 원 의원	황 승 민 의원

한나라당 국회의원 불자회장

우리 사원 우리 스승님

사원탐방은 종도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스승님, 신도분들의 따뜻한 이야기, 신앙체험담, 사원의 신도회 자랑 등 작고 아름다운 사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사연들이 다른 사원 신도 여러분들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전화 : (02)552-1080 팩스 : (02)552-1082

총지종 개종의 요람 실지사

자성일 아침 아들과 함께 부산을 떴다. 실지사를 찾아가는 날이다.

쌀쌀해진 날씨 속에 오늘은 유난히 따사로운 햇살이 눈부시다. 많은 분들을 통해 들은 바에 의하면 실지사는 총지종 창종에 있어 요람과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심인행 지수님의 반혼제 때 이후 두 번째 찾아가는 길이지만 약간의 긴장감을 감출 수가 없다.

실지사는 역사상으로 총지종 창종의 중심에 있었고, 지리적 위치로도 서울 강북 교화의 중심에 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들어서는데 최재숙(원각화) 신도회장 보살님이 우리를 맞았다.

매년 12월 24일은 총지종에서 큰 행사가 열린다. 바로 원정 종조님께서 총지종을 개종(開宗)한 창교절이다. 개종에 관한 역사는 1972년 실지사의 전신인 서울선교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실지사의 전신은 서울선교부로부터 시작되었다. 1972년 8월 27일 원정 종조님께서 이곳 서울선교부를 총본산으로 하여 교화를 시작하시자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스승과 교도 대다수가 입교 개종 할 것을 요청하자 종조님은 이를 받아들여 그 해 12월 24일 서울선교부에서 개종불사와 창교식을 거행하여 종명(宗名)을 총지종(總指宗)으로 결정했다. 총지(總指)라는 뜻은 총지(摠持), 즉 다라니로써 진언행자와 모든 중생을 지도한다는 뜻이다. 이로써 개종기원이 총기원년이 되었다.

이듬해에 종암동으로 이전하고 성북선교부로 개칭하면서 고 심인행 지수님이 맡아 교화를 시작하였다.

1974년 실지사로 개칭하고, 1982년 수유동을 거쳐 1986년 12월 15일 현재의 위치에 대지와 건물을 매입, 본존을 이설하고 오늘에 이르고있다.

실지사는 주택을 개조하여 아래층은 사택과 신도회의 쉬는 공간으로, 2층은 서원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신도회 보살님과 전수님은 하나같이 이곳의 가족적인 분위기를 자랑한다. 자성일 오후 보살님들이 모인자리에는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다. 한쪽에서는 각자님들의 바둑판이 벌어지고 있다.

실지사에는 신정회 외에 특별한 모임이 또 하나 있다. 45세 미만의 보살님들로 구성된 실지회가 그것이다.

실지회는 심인행 전수님이 계실 때 젊은 보살님들 몇 분이 주축이 되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모임이다.

정경자 신정회 총무보살님은 몇 번이나 부끄럽다며 거절하시다 겨우 실지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다.

▶실지회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소녀가장 한 명과 독거노인 한 분을 후원해 오고 있었는데, 현재는 어르신 한 분만 후원하고 있어요.

▶실지회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처음에는 몇 분되지 않았지만 회원이 아니신 보살님들도 좋은 일이라며 조금씩 도와 주셨어요.

지금은 10여명의 보살님들이 참여하고 계세요.

▶후원금은 어떻게 마련하시고 계십니까

매월 실지회 회원 보살님들이 내는 회비와 좋을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몇몇 분의 정성으로 마련되고 있어요.

▶후원하고 있는 어르신은 어떤 분인가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분이라는 것 뿐, 자세한 것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동사무소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이 지역의 어르신 같은데, 한번도 뵌 적은 없어요. 가끔 전화통화는 하고 있답니다.

후원금은 통장을 통해 보내드리구요.

▶앞으로 실지회를 활성화하실 특별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들의 능력이 되는 한 돕겠지만 무리해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직은 지금의 상태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시와 회향을 실천하고 있는 실지사. 이곳에도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정태우 각자님은 예전의 자성학교를 회상하며 아쉬워하신다.

자성학교 지도교사였던 정태우 각자님은 실지사의 오래된 교도이다. 자성학교가 사라진 지금도 교도자녀들을 직접 방문하셔서 영어와 한문을 지도하고 계신다.

말없이 자성일을 지키시며 다시 자성동이들을. 지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쉬운 미소를 지으신다.

"실지사의 또 하나의 자랑은 합창단입니다." 신정회 회장 최재숙(원각화) 보살님이 쑥스러운 듯 말문을 여신다. 지난 1977년 창단한 서울·경인교구 합창단은 현교의 합창단들보다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부산 정각사 개시불사에도 먼길을 마다않고 직접 가서 노래하기도 했다며, 피아노가 없던 시절 풍금 반주에 맞춰 연습하던 그 이야기들은 총지종이 제2의 창종으로 중생계에 부처님의 가지력을 펼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아들과 함께 실지사를 나설 때 합장하시는 전수님과 보살님들의 얼굴에서 부처님의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자성일법회

신정회와는 별도로 젊은 보살님들이 중심되어 실지회 결성
소녀가장과 독거노인을 몇 년째 소리 없이 도와오고 있다

신정회 보살님들

1977년 정각사 현공불사 때의 합창단

인터뷰

약 력

제6 · 7대 (現)중앙종의회 의원
1995. 총지사 근무
1996. 실지사 주교(現)
1997. 통의원 재무부장
1999. 총지종사회복지재단 이사(現)
1999. 청정지 전수 품수

선도원 전수님

중생 의지처가 되어야

▶실지사 보살님들은 참 열심히 정진하시는데 저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서원당은 어떤 곳입니까?

총지종 서원당은 진언이 저를 밝게 하고, 남(喃)자를 관하며 온몸의 중심을 세우고, 공공서원이 큰 마음을 일으키고 동참서원이 남을 이롭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마음에서 큰 마음으로, 좁은 마음에서 넓은 마음으로 바뀌게 합니다. 어떤 경계를 당하면 요란함과 어리석은 마음은 지혜를 가립니다. 이러한 경계를 뛰어넘어 부처님과 대화 할 수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전당입니다.

▶어리석은 질문 같습니다만 총지종 교도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깊은 산은 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깊은 바다에는 수많은 고기가 의지합니다. 중생도 의지처가 있어야 합니다.

더 어렵게 살 때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고, 왜 이렇게 살까 할 때는 아무리 좋은 법문도 욕심 때문에 고마움을 모릅니다. 요구가 많으면 불만도 많게 됩니다. 넘치는 기대로 상대를 보지 마세요. 항상 내 모습을 점검하고 서원당을 자주 찾아 마음자리를 보아야 합니다.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아직 초심자인 우리들은 어떻게 정진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항상 저희들 곁에 계십니다. 밝은 빛으로 말이예요. 물이 흐르면서 산을 돌고 들을 가로질러 한가로이 흐르며 출렁출렁 스스로 가야할 곳을 알아서 멈추지 않고 변함이 없이 흘러갑니다.

염주를 하나하나, 여섯글자 '옴마니반메훔'하고 넘겨야 하는데 무엇에 쫓기듯이 넘겨가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희한 마음으로 해야해요. 부처님이 항상 나를 도와준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이예요. 의심하고 부정적인 마음은 오히려 자신을 망칠 수 있답니다.

> "부처님은 항상 저희들 곁에 계십니다. 밝은 빛으로 말이예요. 물이 흐르면서 산을 돌고 들을 가로질러 한가로이 흐르며 출렁출렁 스스로 가야할 곳을 알아서 멈추지 않고 변함이 없이 흘러갑니다."

▶전수님께서 처음 교화하실 때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60년대이던가요. 학교 다닐 때 이야깁니다. 한 선배가 마음에 드는 옷을 찾는다고 미국사람의 헌옷 가게를 매일 드나들 듯이 했어요. 그렇게해서 결국 옷을 구했지요. 부지런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저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도님께서 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만남을 중요시하고 여럿이 한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때론 스스로 원력이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교도님들로부터 법을 받아 더욱 용맹정진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가는 방향을 좋은 것 나쁜 것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자기 모습으로 보지 않고 편안한 경지, 그것을 배우려고 열심히 정진합니다.